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 오전(2부) 7시 / 오전(3부) 10시 / 오후(4부) 3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1월 8일 (제1383호)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 2부(오전) 10시 / 3부(오후) 3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칼럼

참된 지도자란?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생각을 모아 가장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지도자의 권위는 독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분별에서 나온다.

모세가 좋은 예이다. 출애굽 후 모든 재판을 혼자 감당하던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는 '네가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출18장). 그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일을 나누라고 권면했고, 모세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백성도 편안해지고 일도 능률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15:22)고 말했다. 자고로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더 넓고 깊기 때문이다.

독단은 위험천만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는 순간 판단은 좁아지고, 결국 실수가 커지게 된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독재와 독선은 많은 조직과 나라를 무너뜨렸다. 반면, 훌륭한 기업과 국가의 지도자들은 유능한 참모를 곁에 두고 충분히 토론한 뒤 결단했다.

비행기도 기장 혼자 운항하지 않는다. 부기장과 관제사, 정비사의 협력이 있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마지막 책임은 기장이 지지만, 그 결정은 여러 사람의 전문적인 의견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도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도자는 독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이다. 독단은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결단은 중지(衆智)를 모아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혜를 모아 바른길을 선택하는 지도자를 기뻐하신다.

독단은 중지(衆智)를 이길 수 없다. 참된 지도자는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이다. 지혜자의 귀는 열려 있어야 지혜가 들어오고, 지혜의 마음 또한 열려 있어야 정도(正道)가 들어온다. 중지를 모은 결단은 흔들림이 없고, 공동체에 신뢰를 가져온다.

가자! 우리의 성산, 기도원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55:6~7).

미국 시애틀(Seattle)과 휴스턴(Houston) 집회를 통해 오랜만에 미국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말로는 목사님이 한 27년인가 28년 만에 미국에 오시는 거라며 반가움 반, 섭섭함 반(?)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젊었던 얼굴들은 이미 반백의 노인들이 되었고, 어린아이로 만났던 이들은 30대, 40대에 이르렀더군요. 그 시절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안부를 묻는데, 질문이 '그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였고, 돌아오는 답은 '이미 돌아가셨다거나 소식을 모르겠다거나'였습니다. 90년대 미국 전역을 돌며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2000년 이후 현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신 이후, 거의 3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 인터넷 중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메시지를 꾸준히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먼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신앙을 다져오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좋아져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원양어선이나 군함에 있더라도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든지 목사님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목사님을 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국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시대 목사님도 국내 및 해외집회 영상을 함께 보고 난 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이러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상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우리의 성산,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추계산상집회가 3박 4일간 열리니 말이죠.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침이면 계란과 토스트가 제공되고, 따뜻한 차와 커피까지, 더군다나 이 기간은 장성 지역에 가을이 절정이라더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걸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은 컬컬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령들 모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떠한 추악한 죄라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희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도말,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1:18).

지금까지 기도원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맛보며 영혼이 소생하는 복을 맛보았습니다. 지혜를 만났고,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지만, 단 하나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6:17~18).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번 추계산상집회에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 날짜: 2026년 11월 9일(월) ~ 12일(목)
*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5:6~13)

인생은 내 생각과 말로 만드는 작품이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컴퓨터의 몸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어떤 명령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올바른 정보를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여 사람이 질문하거나 명령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답을 만들어 냅니다. 같은 AI라도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입력하느냐가 무엇을 얻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AI에 명령어를 입력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며,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 행동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무엇을 입력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하십니다. 생각이 인생의 근본이자 설계자거든요. 설계한 대로 집이나 건물이 나오듯,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지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대로 말한 결과라는 열매를 먹는다

컴퓨터나 AI로 설명하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달리 설명해보겠습니다. 밭에 참깨를 심으면 참깨가 납니까, 들깨가 납니까? 참깨나 들깨나 이웃사촌이니 들깨가 날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깨지만, 참깨를 뿌리면 꼭 참깨가 맺힙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고요. 우리 말이 씨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나게 됩니다. 어느 연예인이 습관적으로 "아! 럭키잖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인생이 럭키(lucky)해서 하는 일마다 잘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과거 여러분이 뿌린 말의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함께 보고 온 12명이었지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다간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에게 다 죽을 거라고 합니다. '죽는다', '안 된다'는 씨를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악평한 10명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에 동조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악평하는 10명의 말과 이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요에 옷을 찢으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곳이니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도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윗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1~2)라고 뿌렸습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장인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도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했을 텐데 말입니다. 비바람이 분다고 종자가 바뀔까요? 아니요. 그래서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어 다윗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되고, 늙어서까지 부귀가 넘쳤습니다.

왜 이런 법칙이 꼭 성립하느냐? 이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민14:28).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들숨, 날숨도 보시는데,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그분이 못 듣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들으신 하나님이 들린 그대로, 오차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뱉은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소름이 돋지요? 그러니 이제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 입이라고,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면 안 됩니다. 입을 지켜야지요. 입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단속하고, 생각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사화복(生死禍福)을 두시고(신30:15),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生)과 복(福)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너희 생각과 말에 달렸다고 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4).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게 되어 복을 받고, '나는 못해. 내가 왜?' 그러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니, 잠언의 말씀대로 살고 죽는 것이 내 입에 달린 것입니다(잠18:21).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인생을 바꾸거든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이를 고치고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 말하기를,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고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하여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간곡히 권하기를, "병만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자 그는 생각을 바꿔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는데, 고름이 줄줄 흐르던 것이 멈추고 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 처음 낫겠다는 마음으로 먼 길을 왔지만, 도중에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안 나아도 그만이야.'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다시 종들에 의해 '해 보리라'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다 골라서 뿌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요,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 생각에 부정을 불어넣습니다. 생각만 바꿔놓으면 더 손을 안 써도 알아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만 불어넣었더니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애써서 되는 것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입을 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합니다(사55:8~9).

명작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멋진 미래가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큰 생각이 큰 인물을 만들고, 멋진 생각이 멋진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각이 결과임을 늘 마음 판에 잘 새기고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킵시다(렘6:19). 절대 생각 따로, 말 따로 되지 않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4~35).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죽겠다', '미치겠다', '안 된다', '팔자야', '불황이야', 이런 말일랑 접고, 대신에 "나는 잘된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매일 선포하세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할렐루야!

:: 객원칼럼 ::

인생의 부담중량

경마(競馬)에 출전하는 모든 경주마는 '부담중량'을 감당해야 한다. '부담중량'이란 경주마가 달릴 때 짊어져야 하는 무게를 말한다. 이를테면 기수의 체중을 비롯해서 안장과 재킹(안장 밑에 까는 덮개) 등, 장구들의 무게 말이다.

그런데 부담중량을 부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이 또 있다. 말의 나이, 성별, 경력도 함께 살피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경주마가 우승할 수 있도록 고르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를 토대로 심판관들은 경주마마다 각기 다르게 부담중량을 매긴다. 마치 장기를 둘 때 고수(高手)가 차와 포를 떼고 두는 것처럼, 일종의 '명마 핸디캡'을 부여하는 셈이다.

따라서 좋은 말일수록 더 많은 짐을 지게 되어 있다. 젊고 힘이 좋을수록, 우승 경력이 많을수록, 대회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져야 할 부담중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말에게는 짐을 줄여주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인생의 부담중량을 지고 살아간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직분의 문제까지…. 삶의 매 순간, 짊어진 인생의 짐들은 우리 양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때때로 '왜 나에게만 이런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는가!' 하며 밤을 지새우게 하기도 한다.

지금 혹시 자신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으로 인해 '버겁다, 고통스럽다' 번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 이는 아마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에, 그리고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에 더 큰 무게를 허락하신 것이다. 성경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당신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기지 않으신다.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이기에, 그에 걸맞은 영적 중량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에 향하신 계획을 누가 있어 측량할 수 있으랴!

이제 인생의 무게에 불평 말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감사하자. 오히려 더욱 신앙의 경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신현명 목사**

:: 아름다운 인생 ::

할로윈 데이와 적은 누룩

며칠 전 학생이 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어린 남매와 엄마가 매년 10월 31일인 할로윈 데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로윈은 성인(聖人)을 뜻하는 Hallow와 전야를 뜻하는 e'en(evening)이 합쳐진 단어로 매년 10월 31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거나 순교한 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로윈에 무엇을 떠올리지?", "죽음과 귀신, 두려움이요!" 엄마의 질문에 아이들이 답했다. 이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과 천사들을 만나는 기쁜 날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라는 엄마의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아이를 보며, 어린 자녀에게 신앙의 분별력을 가르친 어머니가 대단하게 보였다.

오늘날 어린이집과 학원에서도 할로윈은 큰 축제가 되었다. 마녀와 해골 분장이 재미있고, 호박 바구니에 사탕을 받아오는 것이 작은 행동이라고 해서 그 의미까지 작아질까.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경고한다(갈5:9). 악한 영들의 계략이 그렇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거부감은 없애고, 마침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듯,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가르침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이들이 어려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평생을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함께하신다. 어린 영혼들이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교단소식 ::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



10월 31일 월드 프레이즈 찬양집회를 맞아 서울과 인천, 각 지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노량진 교육관으로 모여들었다. 이날은 특별히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라는 귀신을 숭배하는 절기에 따라 귀신 분장을 하고 이태원으로, 홍대로 모이는 가운데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을 가득 메웠다. 이는 500여 년 전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의 외침 같았다. 이시대 목사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중심 젊은이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해주시며 찬양집회의 포문을 여셨다.

찬양인도자 이월드 목사님은 찬양에 앞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다윗처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속옷까지 드러내며 힘을 다하여 찬양한다(삼하6:14). 그러자 아내 미갈은 체통을 지키지 않는 왕을 비판하지만,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삼하6:21)'고 당당하게 고백한다. 이에 노량진 교육관의 대성전부터 소성전까지 집회에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찬양과 함께 이월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에서 편의상 성도가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불편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편의를 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는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방언기도는 없다'라는 허무맹랑한 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정확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전14:39)'고 말합니다. 아볼로(행19장)는 물세례만 받은 사람이었으나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니 그가 방언을 하는데 이는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성령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귀신을 쫓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무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방호복을 입고 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 귀신을 쫓고, 각색 병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삽시다. 처음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월드 프레이즈 찬양집회에 참석한 이유 또한 우리 영이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함이고, 총회장 목사님이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다. 이번 월드 프레이즈 찬양집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송현혜 기자**

:: 야곱의 사다리 ::

미래일기

우선 날짜를 정했다. 2017년 4월 22일. 아들 생일이다. 딱히 특별히 생각나는 날짜도 없고 아들 생일이라 얼른 생각나 쉽기도 하고, 날짜를 결정한 다음, 드라마를 써야 했다. 상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꽤 그럴듯한 드라마가 필요했다. 옳지, 드라마는 정적이 있어야 한다. 난 마치 하만을 물리친 모르드개마냥 내 삶에서 내가 안 되기만 바라는 정적이 가장 싫어하는 내 꼭짓점 성공(내 소원)을 거기 집어넣어야 했다.

아! 생생하고 리얼하게, 마치 깃발을 꽂고 승리한 장군 같은 마음으로 내 아들 생일에 내 꿈같은 소원, 개척교회를 설립한 꿈을 대입해 넣었다.

쓰고 나니 진짜 같았다. 그렇게 미래일기를 썼다. 마치 소설을 쓰듯이 미래의 꿈꾸는 일을 오늘 일어난 일처럼 썼다.

2017년 1월 23일, 그 일이 예정보다 앞당겨 현실로 이루어졌다. 비록 미래일기로 시작했지만 꿈꾸고 상상하고 기도하면 허상 같았던 꿈이 현실로 되어 나타난 이 일은 신학교 때 이시대 학장님 추천 도서 중, '조혜련의 미래일기'를 읽고 그대로 실천한 생생한 현장 기록이다. "항해하고 싶은 사람은 늘 바다를 동경하라"는 그 말씀의 실제 경험과 같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일기 하나 쓰고 꿈꾸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꾸는 일을 부풀려 상상하고, 그것을 기록해놓고 기도했더니 꿈같은 일이 미래로 나타났다. 지금 생각해도 이 일은 불가능에 도전했던 멋진 도전의 기록이다. 믿음이 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건지 알겠다.

간절히 바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미래를 상상으로 그리고 기도하라.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실상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남들이 보기엔 허무맹랑해 보이는 뻥 같은 상상도 얼마나 내게 그럴싸한 일로 그려내면 실로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 남이 비웃을 꿈을 꾸라.

박정임 전도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지식을 넘어, 닮아감으로

음악을 처음 배우는 사람과 오랜 시간 곡을 연주해온 대가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

초보 연주자는 악보에 적힌 건반의 위치와 기호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계명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한다. 한 음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악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연주자는 악보 너머를 보기 시작한다. 똑같은 악보를 마주하면서도 대가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다. '이 곡을 쓴 작곡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쁨이었을까, 슬픔이었을까.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대가의 연주는 단순히 음표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작곡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자신의 손끝과 선율로 다시 풀어낸다. 그때 차갑고 건조했던 악보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다.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며, 교리를 익힌다.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공부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는 것은 사뭇 다른 이야기이다.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악보를 읽는 일이라면, 신앙의 깊이는 그 악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오래 남는 인물이 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니라, 끝까지 집을 지켰던 맏아들이다. 맏아들은 성실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다. 오랜 세월을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고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모든 것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맏아들은 서운함과 불평을 쏟아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누구보다 오래 머물렀고 아버지의 말씀도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을 진정 기뻐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규칙'은 배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지만, 맏아들에게 그것은 단지 불공평한 처사였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마주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을까.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먼 거리가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인내의 광야를 지나 비로소 가슴에 새겨진다. 어린 자녀가 아파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 부모는 아이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앞에 마음이 무너진다. 작은 신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앓고 싶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다. 훗날 그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 그때 내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하고 깨닫는다.

우리 역시 삶의 풍랑을 지나고, 억울함과 외로움을 견디며,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품어내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을 체득하게 된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침묵의 계절을 지나면서 나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림을 비로소 온몸으로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던 시선에서 벗어나, 주님의 애타는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게 된다. 길가에 버려진 작고 연약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내 가슴의 아픔이 되고, 방황하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

신앙의 완성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음악을 처음 배울 때부터 대가의 연주를 할 수 없듯,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음 한 음 정성껏 건반을 짚어가듯,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심장 소리에 보폭을 맞추어 가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악보 위에 놓인 한 편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듣게 될 것이다.

지식을 넘어, 닮아감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으며,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망한다.

권정미 성도

:: 참된 깨달음 ::

타협 없는 신앙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지방에 살았고, 어머니는 혼자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무당에게 점을 본 이야기를 아버지께 하셨습니다. "이 집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더라.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못 다니게 단속 잘해라."

당시 불교를 믿고 계셨던 아버지는 집안이 망한다는 말에 그날부터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5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직장 일로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은혜는 더욱 깊어졌지만, 핍박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것도 겨우 허락하셨기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교회에 다니시는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안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핍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핍박하는 아버지도 싫었지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처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꼭 이렇게 믿어야 해요?"

이런저런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없이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실직으로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카드값은 연체되었고, 사는 집을 팔아도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내가 믿을게!"

당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아파트와 산골짜기에 있는 과수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던 과수원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고,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핍박은 사라졌고, 아버지도 마음의 문을 열어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핍박 속에서도 걸어오신 전도자의 길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뒤따라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녀로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과 어머니의 삶에서 핍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한 교회를 섬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이런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명국 집사